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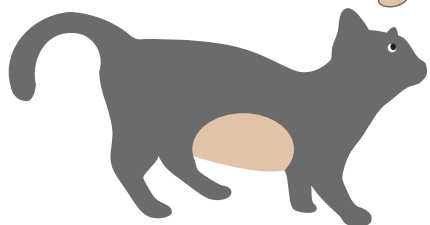
용기있는 행동을 왕따하지 마요

공익제보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다.
또 공익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잘못 행동한 사람도 당장은 싫겠지만
결국은 잘못을 바로잡을테지요.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말한 친구를
“고자질 왜 했냐”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듯이,
공익제보자 잘못으로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어! 야옹이가 생선을 훔쳤어!
그런데 알렸다가
나만 왕따 당하는거 아냐?
용기를 내 알릴까? 말까?



참여연대는 지난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81439 예금주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이 되시면,
정기회비로 참여연대 활동을 지킵니다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수강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모임과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로 힘을 보탭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시민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회원가입 메뉴에서 간편하게~
전화문의 02-723-4251

회원모임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노래모임 참종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rathon
음악모임 패누카 cafe.daum.net/lovepanuca



생각보다 가까운 참여

트위터 @peoplepower21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oplepower21
ARS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공익제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천방지축 고양이를 감시하려면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처럼,
불의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용기를 내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은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공익제보 [whistleblowing]

: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02.723.5302 (이메일) tsc@pspd.org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익제보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너무 어려운 일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공익제보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불의나 나쁜 행동을 보았을 때 나서는 이들을
혹시 “괜히 나선다”고 비웃지는 않나요?

공익제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 공익제보지원센터 블로그

네이버 해피빈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해피빈 ▶ 의인기금 검색



권은희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국가정보원이 댓글 등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숨기려고 했던
경찰청의 행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김담이

당시 어린이집
보육 선생님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출석부 조작으로 나라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은 문제를 신고하였습니다.



박은선 당시 외국어고 사회 선생님
학교가 저지른 입시 면접점수 조작과
교사 채용비리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하였습니다.

2013 7인의 의인義人상 수상자

참여연대는 매년 12월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의인상을 시상합니다.
2013년 의인상 수상자는 모두 일곱 분. 모두 국가기관 등이 공익제보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거나 인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권은희 과장을 빼고는 모두 직장을 잃었습니다.
공익제보한 것이 밋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분들의 공익제보에 대해 좀 더 찾아보고 응원합시다.



김웅배 당시 우유회사 대리점 운영
팔리지 않는 물건을 더 팔으라고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회사와의 전화 통화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Edward. J. Snowden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CIA요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상대로 전화통화와 인터넷기록을
엿본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윤상경 당시 공공기관 직원
사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골프장 출입 등의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을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정진극 당시 대기업 계열사 사원
동반성장 우수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업이 정부 제출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하였습니다.